

# AI 시대, 일자리 지원방향 모색을 위한 제3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 개최

- 1차 '지역', 2차 '보건·의료'에 이어 '일자리'를 주제로 AI 산업전환기 일자리 전망, 교육훈련 및 민간 일자리 분야 전문가 정책제언 청취
- 금년 예산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AI 직업훈련을 대폭 보강한 데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민간 일자리 확대 등 구조적 이슈 주목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2.25일(수) '일자리'를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3차 릴레이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 제3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1.25일(수) 09:30,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예산처 801호 회의실
- 참석자 :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주재), 포용사회전략과장 등  
(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KDI, 산업연구원 등 일자리 분야 전문가

이는 제1·2차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한 데 이어, 우리 경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해 개최되었다. AI 산업 전환기를 맞아 앞으로 일자리 대체, 감소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와 전반적인 산업 생산성 향상으로 새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혼재되는 가운데,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중장년, 정규-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일자리 격차는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안재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센터장,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자리하여 AI 등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현황 진단,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정부에서 금년 예산을 통해 직접일자리, 고용 서비스 등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을 작년 대비 6.2% 증가한 32.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특히 직업훈련을 대폭 재정비해 7만명 대상, 1,800억원 규모의 AI 융복합 직업훈련을 신설·재투자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쉬었음 청년의 증가, 청·장년 간 고용률 격차 심화 등의 지표에서 보듯이 청년 고용여건이 여전히 어렵고,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도 커진 점에 주목하며, 공공 일자리 확대와 병행하여 민간기업이 채용을 늘리고, 기술발전이 일자리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역할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전문가들은 ▲AI 전환, 자동화, 인구 변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AI가 산업계 혁신을 일으키되 일자리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민간기업 협력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다각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면서도 민간, 기업 주도로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과 고용 정책의 통합 설계, 기업 지원시 일자리 창출노력 관련 인센티브 필요성과 ▲환경과 업무 프로세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능 재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필요성 등도 같이 언급하였다.

또한, 일자리 미스매치 측면에서는 직업훈련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AI 기반 경력개발 경로 마련 및 직업훈련-고용서비스간 연계 강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유연한 직업교육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처는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성적표’이자 ‘공동체 구성원의 삶 그 자체’라는 인식 아래, 전문가 제언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문제 대응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더 우대받도록 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구조가 도입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은 일자리 지형에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만큼, 이에 맞춰 정책방향도 민간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산업-고용 관점을 아우르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문가, 국민 의견을 지속 청취하여 대응방향을 구체화 하고, 이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등에 반영·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4-214-1710)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이장욱 (jangwl7@korea.kr)

